

오피스 잔혹 동화: 신입 사원 민수

## 제1장: 스파게티 코드와 UI 기획안

내가 갓 입사한 신입 개발자였을 때, 나는 '객체 지향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기술 서적에서 굉장한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을 하나 보았다. 그것은 거대한 모놀리식(Monolithic) 시스템이 모든 트래픽을 집어삼키고 있는 구조도였다. 책에는 이렇게 써어 있었다. "레거시 시스템은 데이터를 가공하지도 않고 통째로 DB에 집어넣는다. 그러고 나면 쿼리 하나 날릴 수 없게 되어, 마이그레이션이 끝날 때까지 6개월 동안 서버가 뻘어버린다."

나는 시스템의 붕괴에 대해 깊이 생각한 끝에 태블릿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내 생애 첫 번째 '아키텍처'를 그렸다. 나의 기획안 제1호였다. 나는 그 걸작을 임원들에게 보여 주며 내 구조도가 무섭지 않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임원들은 대답했다. "버튼 하나 추가한 게 뭐가 무섭다는 거니?" 내 그림은 버튼을 그린 게 아니었다. 그것은 트래픽을 소화시키고 있는 백엔드 시스템이었다. 그래서 나는 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백엔드의 내부 로직을 그렸다. 임원들에게는 항상 PPT로 설명을 해주어야만 한다. 나의 기획안 제2호는 그런 그림이었다.

임원들은 나에게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백엔드 구조도 따위는 집어치우고 차라리 매출 지표나 KPI, 예산, 마케팅 문구에 관심을 가져 보라고 충고했다. 그래서 나는 입사 6개월 만에 'CTO'라는 멋진 꿈을 포기해 버렸다. 내 기획안 제1호와 제2호가 반려당한 데 낙심해 버렸던 것이다. 임원들은 실무자가 설명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때마다 보고서를 써야 하니 실무자들에게는 힘겨운 노릇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생존법을 선택해야 했고, 프로젝트 관리(PM)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회사의 거의 모든 부서를 돌아다녔다. 사내 정치는 정말로 내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나는 한눈에 '라인'과 '낙하산'을 구별할 수 있었다. 회의실에서 길을 잃었을 때 이런 지식은 아주 유용한 것이다. 나는 살아오면서 진지한 관리자들을 많이 만나보았다. 나는 끈대들 틈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다. 나는 그들을 아주 가까이서 보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내 인사평가가 별로 나아지지는 않았다.

조금 '일잘러' 같아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면, 나는 늘 간직하고 다니던 내 기획안 제1호를 꺼내 그를 테스트해 보곤 했다. 그 사람이 정말로 개발을 이해하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건 UI 버튼이군요." 그러면 나는 백엔드 이야기도, 서버 트래픽 이야기도, 리팩토링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나는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추어 줬다. 주식 이야기나 골프, 연봉 협상, 사내 식당 메뉴 같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관리자는 아주 사회생활 잘하는 대리를 알게 된 것을 기뻐했다.

## 제2장: 지하 전산실에서의 만남

그래서 나는 마음을 털어놓고 지낼 진정한 동료 하나 없이 홀로 살아왔다. 6년 전 본사 지하 전산실에서 메인 서버가 다운될 때까지는 말이다. 내 서버 안의 로드 밸런서가 깨져 버린 것이다. 데브옵스(DevOps) 담당자도 부사수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 어려운 복구 작업을 혼자서 해내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나에게는 해고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다. 마실 커피(카페인)는 겨우 텀블러 반 잔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첫날 밤 나는 지상 사무실에서 수천 계단 떨어진 지하 전산실 차가운 바닥에서 쪽잠이 들었다. 넓은 시장 경쟁 한가운데 떠 있는 스타트업 대표보다 나는 더 고립되어 있었다. 그러니 오전 9시 정각, 이상한 목소리가 나를 깨웠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목소리는 말했다. "부탁이야... AI 인턴(Code) 하나만 코딩해줘!" "뭐라고?" "AI 인턴 하나만 짜줘..."

나는 서버 알림을 받은 듯 벌떡 일어섰다. 눈을 마구 비비고 사방을 잘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정말이지 이상하게 생긴 신입 사원 하나가 진지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훗날 내가 그를 찍은 사원증 사진 중에서 가장 잘된 것이 여기 있다. 하지만 내 사진은 실물보다는 덜 힙(Hip)하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입사 초기 임원들이 CTO로서의 내 꿈을 꺾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UI 버튼과 UX 버튼 말고는 아무것도 그리는 연습을 하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나는 너무 놀라서 눈을 휘둥그레 뜨고 그 유령 같은 낙하산을 바라보았다. 내가 본사 사무실에서 수천 계단이나 떨어진 지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 그런데 그 신입 사원 '민수'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았고, 야근이나 번아웃이나 배고픔이나 해고의 공포에 시달리는 것 같지도 않았다. 지하 전산실 한가운데서 멘탈이 나간 개발자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 내가 가까스로 말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런데... 민수 씨, 거기서 뭘 하고 있나?" 그러자 그는 아주 중요한 업무 지시나 되는 듯이, 나직하고 느릿한 목소리로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부탁이야... AI 인턴 하나만 짜줘..."

서버 장애가 너무 심각할 때에는 감히 거역할 수가 없는 법이다. 사무실에서 수천 계단 떨어진 곳에서 해고의 위협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 엉뚱한 짓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주머니에서 노트북과 키보드를 꺼냈다. 그러나 내가 공부한 것은 기획, 예산, 정치, 보고서라는 생각이 나서, 그 신입 사원에게 (좀 기분이 나빠서) 나는 코딩을 할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대답했다. "괜찮아. AI 인턴 하나만 짜줘."

나는 AI 코드를 한 번도 짜 본 적이 없었으므로, 내가 그릴 수 있는 단 두 가지 기획안 중 하나를 그에게 그려 주었다. 로직이 보이지 않는 버튼 그림이었다. 그런데 그 신입 사원의 대답을 듣고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니, 아니야! 모놀리식 구조 안에 있는 스파게티 코드는 싫어. 모놀리식은 아주 위험하고, 레거시는 아주 거추장스러워. 내가 근무하는 부서는 아주 작거든. 내게는 AI가 필요해. AI를 짜줘."

그래서 나는 코딩을 했다. 그는 모니터를 주의 깊게 바라보더니 말했다. "안 돼. 이 코드는 벌써 메모리 누수가 났는걸. 다른 걸로 짜줘." 나는 또 코딩했다. 내 친구는 너그럽고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것 봐... 이건 AI가 아니라 그냥 매크로잖아. if문만 잔뜩 있는걸." 그래서 나는 또다시 짰다. 그러나 그것도 리젝트(Reject)를 맞았다. "이건 너무 구형 라이브러리야. 나는 오래 유지보수할 수 있는 AI를 원해."

나는 서버를 복구하는 일이 급해서 참을성이 바닥났다. 그래서 나는 아무렇게나 샌드박스(Sandbox) 환경을 구축해 놓고 툭 한마디 던졌다. "이건 샌드박스야. 네가 원하는 AI 인턴은 그 안에 있어." 그러자 나의 어린 코드 리뷰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걸 보고 나는 몹시 놀랐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이 AI에게 GPU를 많이 할당해 주어야 할까?" "왜?" "내가 근무하는 부서는 아주 작거든..." "거기 있는 리소스로 충분할 거야. 내가 준 건 아주 가벼운 모델이니깐." 그는 고개를 숙여 모니터를 들여다보았다.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 뭐... 어! 절전 모드에 들어갔네..." 이렇게 해서 나는 신입 사원 민수를 알게 되었다.

### 제3장: TF팀 B-612

그가 어느 부서에서 왔는지 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민수는 내게 많은 것을 물어보면서도, 내 질문에는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 않았다. 그가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 모여서 서서히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그가 내 메인 서버를 처음 보았을 때 (내 서버 랙은 그리지 않겠다. 그건 내게 너무 복잡한 배선이니깐.) 그는 물었다. "저 췌덩이는 뭐야?" "저건 췌덩이가 아니야. 돌아가는 거야. 서버지. 내 메인 서버야." 나는 내가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 주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러자 그가 소리쳤다. "뭐! 팀장님이 본사에서 떨어졌다고?" "그래."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아! 그거 참 재미있네!" 민수는 유쾌하게 웃어젖혔는데, 그 웃음소리가 몹시 내 비위를 거슬렀다. 내 인사고과 실패를 누가 비웃는 건 싫으니까. 그리고 그가 덧붙였다. "그럼 팀장님도 본사 출신이구나! 어느 부서에서 왔어?" 바로 그 순간 나는 그 존재의 신비를 푸는 로그(Log)를 보았고, 그래서 불쑥 물었다. "그럼 너는 다른 지사에서 왔니?"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서버를 바라보며 머리를 살며시 끄덕일 뿐이었다. "이걸 관리하는 걸 보니 핵심 부서에서 오지는 못했겠군..."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더니, 주머니에서 내가 짜 준 AI 코드가 담긴 USB를 꺼내어 그 보물을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다른 지사들'이라는 그 짝막한 말에 내 호기심이 얼마나 자극되었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좀 더 깊이 알아내려고 노력했다. "민수 씨, 너는 어디서 왔니? 네가 말하는 '내가 근무하는 곳'이란 데가 어디니? AI 인턴을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니?"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다가 그가 대답했다. "팀장님이 준 샌드박스가 퇴근 후에는 AI의 집이 될 테니까 참 잘됐어." "그렇고말고. 그리고 네가 성과를 잘 내면, 업무 시간에 AI를 묶어 둘 방화벽도 줄게. 보안 서약서도 주

고." 민수는 그 제안에 몹시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묶어 둔다고? 참 이상한 생각이 네!" "하지만 보안을 걸지 않으면 아무 데이터나 크롤링하다가 에러를 낼 텐데." 내 친구는 다시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데이터가 유출되면 어딜 간다는 거야?" "어디든지. 경쟁사 서버로 곧장 앞으로..." 그러자 민수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괜찮아. 내가 근무하는 부서는 아주 작으니까!" 그리고는 조금 서글픈 기색으로 덧붙였다. "앞으로 곧장 유출해봤자, 멀리 갈 수도 없어..."

나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가 속한 부서가 회의실 하나보다 클까 말까 하다는 사실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크게 놀란 것은 아니었다. 기획팀, 개발팀, 인사팀, 재무팀같이 이름이 붙여진 큰 부서들 말고도 수백 개의 다른 TF(Task Force)들이 있고, 그중 어떤 것은 너무 작아서 조직도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으니까. 인사팀이 이런 TF를 발령 내면 이름 대신 번호를 붙여 준다. 이를테면 '신사업 TF 325'라고 부르는 것이다.

나는 민수가 근무하던 부서가 '부서 B-612'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 부서는 2020년 외부 컨설턴트에 의해 딱 한 번 보고서에 잡힌 적이 있었다. 당시에 그는 경영 전략 회의에서 자신의 발견을 성대하게 발표했다. 그러나 그가 입은 캐주얼한 후드티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임원들이란 다 이런 식이다. 부서 B-612의 명성을 위해서는 다행스럽게도, 모기업의 회장이 전 직원에게 해고를 시킨다는 위협을 하며 정장을 입도록 강요했다. 그래서 그 컨설턴트는 2025년에 매우 세련된 수트를 입고 다시 발표를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두가 그의 말을 믿어주었다.

내가 부서 B-612에 대해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부서 코드까지 알려주는 것은 임원들 때문이다. 임원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새로 뽑은 신입 사원 이야기를 할 때, 임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묻지 않는다. "그 친구 코딩 스타일은 어떠니? 그 친구는 무슨 언어를 제일 좋아하니? 깃허브(Github) 잔디는 심니?" 이런 말은 절대로 묻지 않는다. 그 대신 "그 친구 토익은 몇 점이니? 학점은 몇이니? 희망 연봉은 얼마니? 아버지는 뭐 하시니?" 하고 묻는다. 그래야만 그 친구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임원들에게 "듀얼 모니터에는 IDE가 켜져 있고 책상에는 피규어가 놓인 쾌적한 개발실을 보았어요."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 사무실을 상상하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인테리어 비용 2억 원짜리 사무실을 보았어요."라고 말해야 한다. 그래야 "야, 참 생산성 넘치는 곳이구나!" 하고 감탄한다. 그러니 그들에게 "민수가 열정적이었고, 웃었고, AI 인턴을 원했다는 것이 그가 존재한다는 증거다. AI를 원한다는 건 그가 일할 의지가 있다는 뜻이다."라고 말해 보았자 소용없다. 그들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당신을 인턴 취급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발령받은 곳은 부서 B-612입니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납득하고 더 이상 귀찮은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이다. 임원들은 다 그런 식이다. 그들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실무자는 임원들에게 아주 너그러워야 한다.

#### 제4장: 레거시 코드의 위험

매일 나는 민수의 부서, 그가 전배 온 과정, 그리고 사내 이동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그가 무심코 내뱉는 말들을 통해 서서히 드러났다. 사흘째 되던 날, 나는 '레거시 코드(Legacy Code)'의 비극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번에도 역시 AI 인턴 덕분이었다. 민수가 심각한 의문이 생긴 듯 불쑥 물었다. "AI가 작은 버그를 잡는다는 게 정말이야?" "그럼, 정말이지." "아! 그거 잘됐네!" 나는 AI가 작은 버그를 잡는다는 게 왜 그리 중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민수는 덧붙였다. "그럼 AI가 레거시 코드도 리팩토링하겠네?" 나는 민수에게 레거시 코드는 작은 버그가 아니라 성당만큼이나 거대한 기술 부채이고, 개발자 한 트럭을 몰고 가도 레거시 코드 한 모듈을 다 고치지 못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개발자 한 트럭이라는 말에 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개발자들을 포개 놓아야겠네." (야근을 시켜야겠네.) 하지만 그는 현명하게 지적했다. "레거시 코드도 똥이 되기 전에는 '최신 기술'로 시작하잖아." "맞아! 그런데 왜 AI가 초기 레거시를 잡기를 바라니?" 그는 "아이 참!" 하고 말하며, 마치 아주 뻔한 로직이라는 듯 대답했다. 나는 혼자서 이 수수께끼를 푸느라 머리를 꽤나 짜내야 했다.

사실 민수의 부서 서버에는 다른 모든 서버와 마찬가지로 좋은 코드와 나쁜 코드가 있었다. 따라서 좋은 코드의 커밋과 나쁜 코드의 커밋이 있었다. 그러나 코드는 바이너리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 코드들은 저장소(Repo) 깊은 어둠 속에서 잠들어 있다가, 그중 하나가 문득 실행되고 싶어지면 기지개를 켜고 런타임을 향해 수줍게 메모리를 내민다. 그것이 기능 추가나 UI 개선이라면 마음대로 배포하게 내버려 두어도 된다. 하지만 악성 코드나 스파게티 코드라면 눈에 띄는 대로 롤백(Rollback)해 버려야 한다.

민수의 부서에는 무시무시한 씨앗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레거시 코드'의 씨앗이었다. 그 부서의 저장소는 레거시 코드 투성이었다. 레거시 코드는 너무 늦게 손을 쓰면 영영 없앨 수가 없다. 코드가 프로젝트 전체를 덮어 버리고, 의존성이 시스템에 구멍을 뚫는다. 부서가 너무 작으니까 레거시 코드가 너무 많으면, 프로젝트는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만다(빌드 실패). "그건 프로세스의 문제야." 훗날 민수가 내게 말했다. "아침에 출근을 마친 다음에는 정성 들여 코드를 리뷰해 주어야 해. 핵심 기능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즉시 레거시 코드를 꼬박꼬박 리팩토링해 주어야 해. 짤 때는 핵심 기능과 무척 닮았거든. 귀찮은 일이지만, 아주 쉬운 일이야."

#### 제5장: 칼퇴와 로딩 화면

오, 민수! 너의 딱딱하고 단순한 회사 생활의 비밀을 나는 이렇게 차근차근 알게 되었구나. 오랫동안 너에게는 퇴근 시간의 멍 때림을 바라보는 것만이 유일한 낙이었지.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나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네가 내게 이렇게 말했으니까. "나는 칼퇴를 정말 좋아해. 우리 퇴근하는 거 보러 가자." "하지만 기다려야지." "뭘 기다려?" "오

후 6시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처음에 너는 무척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곧 자기 자신이 우스운 듯 웃음을 터뜨렸지. 그리고 나에게 말했어. "난 아직도 내가 대학생인 줄 안다니까!" 사실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미국 지사가 점심시간일 때 한국 본사에서는 퇴근을 한다. 미국으로 단숨에 발령 날 수만 있다면 퇴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불행히도 미국은 너무 멀리 있다. 하지만 너의 그 조그만 부서에서는 의자를 몇 발짝 뒤로 물려 탕비실로 가기만 하면 되었지. 그래서 너는 원할 때마다 일이 끝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야. "어느 날 나는 로딩 바가 100% 되는 걸 마흔네 번이나 보았어!" 그리고 잠시 후 너는 덧붙였다. "팀장님도 알지... 몹시 번아웃이 올 때에는 윈도우 종료 화면이 보고 싶어지는 거..." "그럼 마흔네 번이나 본 날은 그토록 힘들었던 거니?" 하지만 신입 사원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 제6장: 핵심 프로젝트와의 갈등

닷새째 되는 날, 역시 AI 인턴 덕분에 민수의 회사 생활의 비밀이 또 하나 밝혀졌다. 오랫동안 혼자 고민하던 문제인 듯 그가 불쑥 물었다. "AI는 버그를 잡으니까, 프로젝트도 갈아엮겠네?" "AI는 입력된 대로 다 처리하지." "버그(가시)가 있는 프로젝트도?" "그럼, 버그가 있는 프로젝트도 건드리고 말고." "그럼 버그는 도대체 뭘에 쓰는 거지?" 나는 그 답을 몰랐다. 그때 나는 서버에서 꼭 조여진 나사를 빼내느라 몹시 바빴다. 서버 다운이 매우 심각해 보이기 시작했고, 마실 커피가 떨어져 가고 있어서 최악의 사태가 걱정되던 참이었다. "버그는 도대체 뭘에 쓰는 거냐구?" 민수는 한번 질문을 하면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었다. 나는 나사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아무렇게나 대답해 버렸다. "버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프로젝트가 심술궂어서 뱉어내는 거지!" "아!"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원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거짓말! 프로젝트들은 예민해. 복잡하구. 프로젝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을 방어하는 거야. 버그가 있으면 개발자가 무서워할 거라고 믿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이 나사가 계속 안 풀리면 망치로 서버를 두들겨 깨버려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민수가 다시 내 생각을 방해했다. "그럼 팀장님은 프로젝트가..."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난 아무것도 안 믿어! 난 그냥 아무렇게나 대답한 거야. 나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는 깜짝 놀라 나를 쳐다보았다. "중요한 일이라구?" 그는 내가 드라이버를 들고, 손가락은 시커먼 먼지투성이가 되어, 그에게는 아주 흉측해 보이는 랙 장비 위로 몸을 숙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 "팀장님은 곧대처럼 말하네!" 그 말에 나는 조금 부끄러웠다. 하지만 그는 무자비하게 덧붙였다. "팀장님은 모든 걸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어... 모든 걸 통치고 있어!" 그는 정말로 화가 나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에어컨 바람에 흩날렸다.

"내가 아는 어떤 부서에는 얼굴이 시뻘건 부장님이 살아요. 그는 코드 냄새를 맡아본 적도 없고, 로그를 바라본 적도 없고, 팀원을 칭찬해 본 적도 없어요. 오로지 비용 계산만

하면서 살았죠. 그러면서 하루 종일 팀장님처럼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임원 될 사람이야!'라고 되뇌고 있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야. 그건 엑셀 파일이야!" "뭐라고?" "엑셀 파일이라구!"

민수는 이제 화가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십 년 전부터 프로젝트들은 버그를 만들어 왔어. 수십 년 전부터 개발자들은 그래도 프로젝트를 맡아 왔고. 그런데 프로젝트들이 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버그를 만드느라 그토록 애를 쓰는지 이해하려고 하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개발자와 버그의 전쟁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뚱뚱한 붉은 얼굴의 부장님이 하는 연말 정산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만약에 내가 내 부서에만 있고 다른 데는 없는, 회사에 단 하나뿐인 '핵심 프로젝트'를 알고 있는데, 멍청한 AI 인턴 하나가 어느 날 아침 무심코 데이터를 날려 버릴 수도 있다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는 얼굴이 빨개져서 계속 말했다. "누군가 수백, 수천 개의 프로젝트 중에 단 하나밖에 없는 프로젝트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야근을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거야. '저기 서버 어딘가에 내 코드가 돌고 있겠지...' 하고 생각할 테니까. 하지만 AI가 그 코드를 지워 버린다면, 그에게는 갑자기 모든 모니터가 꺼지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밤이 되었다. 나는 장비를 내려놓았다. 드라이버도, 나사도, 카페인 부족도, 해고도, 이제는 우습게 보였다. 어떤 부서에, 나의 회사인 본사에, 위로해 주어야 할 신입 사원이 있었다. 나는 그를 껴안고 달래 주었다. 나는 말했다. "네가 사랑하는 프로젝트는 위험하지 않아. 내가 네 AI에게 방화벽을 그려 줄게. 네 프로젝트에게는 예외 처리(Try-Catch)를 그려 줄게. 내가..."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내 자신이 몹시 서툴게 느껴졌다. 어떻게 해야 그의 멘탈을 되돌리고 다시 그와 슬랙(Slack)을 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다. 눈물의 사내 메신저는 그토록 신비로운 곳이다.

## 제7장: 퇴사 결심과 프로젝트의 배웅

나는 그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 곧 더 잘 알게 되었다. 민수의 부서에는 기능이 하나뿐인 아주 소박한 스크립트들이 있었다. 그 코드들은 메모리를 거의 차지하지 않았고 아무도 귀찮게 하지 않았다. 아침에 부팅 때 나타났다가 저녁에 종료되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를 기획서 하나가 이슈 트래커에 등록되었다. 민수는 다른 이슈들과는 다른 이 기획을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새로운 종류의 레거시일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개발은 곧 멈추지 않고 UI를 렌더링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메인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지켜보던 민수는 그 속에서 기적 같은 유니콘 서비스가 나타나리라는 것을 예감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자신의 깃(Git) 브랜치 안에서 아름다움을 뽐낼 준비를 하느라 꾸물

거렸다. 프로젝트는 테마 컬러를 신중하게 골랐다. 천천히 CSS를 입고 컴포넌트를 하나씩 다듬었다. 대중 짤 프로토타입처럼 구겨진 모습으로 배포되기는 싫었던 것이다. 프로젝트는 자신의 트래픽이 절정에 달했을 때 오픈하고 싶어 했다. 아! 정말로 앙큼한 프로젝트였다. 그 신비로운 빌드 과정은 며칠이고 계속되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딱 월요일 회의 시간에 프로젝트는 모습을 드러냈다. 그토록 공들여 준비해 놓고서 프로젝트는 로딩 스피너를 돌리며 말했다. "아! 이제 막 서버가 떴어요... 용서하세요. DB가 온통 형클어져 있네요..." 민수는 감탄을 억누를 수 없었다. "정말 혁신적이군요!" "그렇죠? 난 CEO 발표와 동시에 런칭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새침하게 대답했다. 민수는 이 프로젝트가 그다지 겸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지만, 프로젝트는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서버 비용을 결제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제 오토스케일링을 좀 신경 써 주시겠어요?" 민수는 당황해서 신선한 클라우드 크레딧을 찾아 프로젝트에게 뿌려 주었다.

이렇게 프로젝트는 런칭하자마자 버그와 에러로 민수를 괴롭혔다. 어느 날은 자기 코드에 돌은 네 개의 치명적 버그(가시) 이야기를 꺼내며 말했다. "블랙 컨슈머들이 악플을 달고 오라고 해요!" "내 부서에는 블랙 컨슈머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코드를 읽지 않아요." "저는 코드가 아니에요." 프로젝트가 상냥하게 대답했다. "미안해요..." "전 악플은 무섭지 않지만, 트래픽 폭주가 무서워요. 혹시 로드 밸런서 없나요?" '트래픽이 무섭다니, 서비스로서는 안된 일이네. 이 프로젝트는 참 까다롭구나...' 민수는 생각했다. "저녁에는 컨테이너 격리를 시켜 주세요. 이곳은 보안이 너무 취약하네요. 인프라가 좋지 않군요. 내가 기획된 곳에서는..." 하지만 프로젝트는 말문이 막혔다. 아이디어 형태로 왔으니 다른 인프라에 대해 알 리가 없었다. 뻔한 거짓말을 하려다 들킨 게 부끄러워진 프로젝트는 민수가 잘못된 것처럼 느끼게 하려고 에러 로그를 두세 번 뿜었다. "로드 밸런서는요?" "세팅해 주려던 참이었는데, 당신이 알림을 보내서..." 그러자 프로젝트는 민수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에러를 더 심하게 냈다.

그래서 민수는 사랑하는 마음(애사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곧 프로젝트를 의심하게 되었다. 그는 프로젝트가 하는 사소한 경고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불행해졌다. "나는 그 로그를 읽지 말았어야 했어." 어느 날 그가 내게 털어놓았다. "프로젝트들의 경고는 절대로 들으면 안 돼. 그냥 실행하고 성과를 즐겨야 해. 내 프로젝트는 내 부서를 매출로 채워 주었지만, 나는 그걸 즐길 줄 몰랐어. 그 악플 이야기도 나를 화나게 할 게 아니라 가엾게 여겼어야 했는데..." 그는 계속했다. "그때 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 로그가 아니라 UX를 보고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 프로젝트는 나에게 보너스를 주고 이력을 환하게 해주었어. 퇴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어설픈 튕김 뒤에 따뜻한 사용자 경험이 숨어 있다는 걸 눈치챌어야 했는데. 프로젝트들은 정말 모순덩어리야! 하지만 난 너무 신입이라 프로젝트를 리딩할 줄 몰랐던 거야."

민수는 부서 이동 시즌을 이용해 TF팀을 떠나기로 결심했던 것 같다. 떠나는 날 아침 그



는 로컬 환경을 깨끗이 정돈했다. 실행 중인 프로세스들을 꼼꼼하게 종료(Kill)했다. 그에게는 활성 프로세스가 두 개 있었는데 아침에 모닝 루틴을 돌리기에 아주 편리했다. 좀비 프로세스도 하나 있었다. 그는 "어찌 될지 모르니까!" 하며 좀비 프로세스도 정리했다. 프로세스들은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메모리를 잡아먹지 않고 조용히 종료된다. 프로세스 폭주는 벽난로의 불과 같다. 물론 우리 회사에서는 프로세스를 정리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바쁘다. 그래서 서버가 우리에게 곤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민수는 조금 슬픈 마음으로 레거시 코드의 마지막 주석들도 지워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날 아침에는 그 익숙한 업무들이 무척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프로젝트에게 마지막으로 패치를 해주고 컨테이너를 달아 주려는 순간, 그는 울고 싶은 심정이 되었다. "잘 있어." 그가 프로젝트에게 말했다. 프로젝트는 대답하지 않았다. (응답 없음) "잘 있어." 그가 다시 말했다. 프로젝트가 404 에러를 냈다. 서버 다운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어리석었어요." 마침내 프로젝트가 팝업을 띄웠다. "용서해 주세요. 부디 좋은 곳으로 이직하세요." 비난하는 에러 코드가 없어서 민수는 놀랐다. 그는 마우스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조용한 정상 작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럼요, 난 당신을 필요로 해요. 당신이 그 사실을 모른 건 내 UI 탓이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도 나만큼 바보였어요. 부디 행복하세요... 컨테이너는 됐어요. 이제 필요 없어요." "하지만 트래픽이 몰리면..." "내 버그가 그리 심한 건 아니에요... 밤 트래픽을 받으면 더 좋아질 거예요. 나는 라이브 서비스니까요." "해커들이 오면..." "유저와 친해지려면 버그 리포트 두세 개쯤은 건뎌야죠. 유저는 무척 예뻐 거예요. 유저가 아니면 누가 나를 접속해 주겠어요? 당신은 다른 회사로 가 버릴 테고... 큰 해커들은 두렵지 않아요. 내게도 보안 모듈이 있으니까요." 프로젝트는 순진하게 네 개의 방화벽 규칙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지 말아요. 랙 걸려요. 퇴사하기로 결심했으니 어서 가요." 프로젝트는 로딩 걸리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던 것이다. 그토록 자존심이 강한 '핵심 프로젝트'였다.

## 제8장: 본부장, 마케터, 개발자, CFO

민수는 부서 325, 326, 327, 328, 329, 330호 근처에 와 있었다. 그는 건문을 넓히기 위해 그 부서들을 방문하기로 했다.

첫 번째 부서에는 '\*\*'낙하산 본부장(왕) '\*\*이 살고 있었다. 본부장은 명품 정장을 입고 최고급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 부하 직원이 왔구나." 본부장은 민수를 보고 외쳤다. 민수는 생각했다.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보지?' 그는 꼰대들에게는 세상이 아주 단순하다는 것을 몰랐다. 꼰대들에게는 모든 직원이 다 부하인 것이다. "가까이 오라. 네 사원증 좀 보자." 본부장은 누군가에게 지시를 하게 된 것이 아주 자랑스러워 거만하게 말했다. 민수는 앉을자리를 찾았으나, 사무실은 본부장의 골프 가방과 결제 서류로 꽉 차 있었다. 그래서 서 있었는데, 피곤해서 하품이 나왔다. "임원 면전에서 하품

하는 것은 사규에 어긋나는 짓이다. 하품을 금지하노라." "참을 수가 없어요. 긴 야근을 하느라 잠을 못 잤거든요." 민수가 곤란해하며 대답했다. "그렇다면 하품을 하도록 업무 지시하노라. 나는 몇 년 동안 하품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자, 다시 하품해라. 지시사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겁이 나서 하품이 안 나와요..." 본부장은 짐짓 화를 내며 중얼거렸다. 본부장은 자신의 권위가 존중받기를 원했다. 그는 반대 의견을 용납하지 않는 독재자였다. 하지만 그는 아주 선량했기(?) 때문에 이치에 맞는 지시만 내렸다. "내가 만약 김 부장에게 드론으로 변하라고 지시했는데 김 부장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김 부장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민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앓아도 될까요?" "앓기를 승인하노라." 본부장은 웃자락을 걷어 올리며 말했다. 민수는 의아했다. 부서는 아주 조그만데, 이 본부장은 도대체 무엇을 결재한단 말인가? "본부장님, 질문을 해도 될까요?" "질문하기를 승인하노라." "본부장님께서서는 무엇을 관리하십니까?" "모든 것을 관리하노라." 본부장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들요?" 본부장은 손짓으로 자신의 부서와 다른 부서들, 그리고 창밖의 다른 회사들까지 가리켰다. "그 모든 것들요?" "그 모든 것들." 그는 부서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업계의 제왕이었던 것이다. "그럼 직원들이 본부장님께 복종하나요?" "물론이지. 즉각 복종한다. 나는 근태 불량을 용납하지 않는다." 민수는 그런 권력에 감탄했다. 자신에게 그런 권력이 있다면 야근 신청서를 쓰지 않고도 하루에 칼퇴를 마흔네 번이 아니라 칠십이 번, 아니 백 번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자신의 작은 TF팀을 떠나온 것이 슬퍼져서 본부장에게 청했다. "저는 칼퇴를 하고 싶어요... 저에게 결재를 해주셔서 퇴근하도록 지시해 주세요." "내가 개발자에게 마케터처럼 미팅 저 미팅으로 날아다니라고 지시하거나, 베스트셀러 소설을 쓰라고 지시하거나, 드론으로 변하라고 지시했는데 개발자가 그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누구 잘못이겠느냐?" "본부장님의 잘못입니다."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맞다. 누구에게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해야 하는 법이다. 권위는 무엇보다 역량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네가 직원에게 회사를 불지르라고 명령한다면 그들은 노조를 만들 것이다. 내가 야근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내 지시들이 '회사를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그럼 제 퇴근은요?" 한번 한 질문은 절대 잊지 않는 민수가 물었다. "해주겠다. 내가 지시하겠다. 하지만 인사 규정에 따라 조건이 갖추어질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게 언젠데요?" "음... 음..." 본부장은 스케줄러를 뒤적거리며 대답했다. "오늘 저녁... 저녁 11시 40분이다. 너는 내 리더십이 얼마나 잘 이행되는지 보게 될 것이다." 민수는 하품을 했다. 칼퇴를 못 하게 된 것이 아쉬웠다. 그리고 그는 좀 지루해졌다. "저는 여기서 더 할 일이 없어요. 다른 부서로 가봐야겠어요." "가지 마라. 너를 팀장으로 임명하겠다!" "무슨 팀장이요?" "음... 윤리경영팀장이다!" "하지만 감시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그건 모를 일이지. 내가 아직 내 본부를 순시해 보지 않았거든. 나는 늙었고, 법인차를 둘 곳도 없고, 걷는 건 피곤해서 말이야." "제가 벌써 다 봤어요." 민수는 몸을 굽혀 파티션 저쪽 편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저쪽에도 아무도 없는데요." "그럼 네 자신을 감사하거라. 그게 가장 어려운 일

이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보다 자신을 평가하는 게 훨씬 어렵다. 네가 자신을 잘 평가할 수 있다면 너는 참으로 지혜로운 인재인 것이다." "저는 어디서든 저를 평가할 수 있어요. 굳이 여기서 살 필요는 없어요." "음... 내 본부 어딘가에 늙은 인턴 한 명이 있는 줄 안다. 밤이면 타자 소리가 들리거든. 그 인턴을 감사하거라. 때때로 그 인턴에게 시말서를 쓰게 해라. 그러면 그의 고용은 너의 감사에 달려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매번 반려해 주어라. 인턴은 한 명뿐이니까 아껴야지." "전 시말서는 싫어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가지 마라." 본부장이 말했지만, 민수는 한숨을 쉬고는 작별을 고했다. "자네를 특임 대사로 임명하노라!" 본부장이 황급히 소리쳤다. 그는 아주 위엄 있어 보였다. '임원들은 참 이상해.' 민수는 면접을 보러 다니며 생각했다.

두 번째 부서에는 '\*\*인플루언서 마케터(허영심 많은 사람)\*\*'가 살고 있었다. "아! 팔로워가 하나 찾아오는군!" 그는 민수를 보자마자 외쳤다. 마케터에게는 다른 모든 사람은 팔로워일 뿐이다. "안녕하세요. 모자(프로필 사진)가 참 이상하네요."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지. 사람들이 내게 '좋아요'를 누를 때 답글을 달기 위해서야. 불행히도 이쪽으로는 아무도 트래픽이 안 오지만." "그래요?" 민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두 손으로 스마트폰을 두드려 봐." 그가 말했다. 민수가 좋아요를 누르자 그는 셀카봉을 들어 올리며 겸손하게 포즈를 취했다. '본부장을 만나는 것보단 재미있네.' 민수는 다시 좋아요를 눌러주었다. 마케터는 다시 셀카봉을 들어 인사했다. 오 분쯤 되자 민수는 이 바이럴 마케팅 놀이에 싫증이 났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하지만 그는 듣지 못했다. 인플루언서들은 칭찬 댓글 말고는 아무것도 듣지 않는다. "너는 정말로 나를 '리스펙'하니?" "리스펙한다는 게 뭐예요?" "리스펙한다는 건 내가 이 회사에서 가장 힘하고, 가장 옷을 잘 입고, 가장 연봉이 높고, 가장 트렌디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야." "하지만 이 부서엔 대리님 혼자밖에 없잖아요!" "나를 기쁘게 해줘. 어쨌든 나를 리스펙한다고 해줘." "대리님을 리스펙해요." 민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게 대리님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민수는 그 부서를 떠났다. '마케터들은 정말 이상해.' 민수는 생각했다.

세 번째 부서에는 '\*\*워커홀릭 개발자(술주정뱅이)\*\*'가 살고 있었다. 방문은 아주 짧았지만 민수를 몹시 우울하게 만들었다. "거기서 뭘 하고 있어요?" 빈 핫식스 캔 한 무더기와 커피가 가득 찬 텀블러 한 무더기를 앞에 두고 모니터 앞에 구부정하게 앉아 있는 그에게 민수가 물었다. "코딩을 하지." 그가 침울하게 대답했다. "왜 코딩을 해요?" "잊기 위해서지." "무엇을 잊기 위해서요?" 민수는 그가 측은해졌다. "부끄럽다는 걸 잊기 위해서지." 그가 거북목을 떨구며 털어놓았다. "뭐가 부끄러운데요?" 민수는 그를 도와주고 싶었다. "코딩하는 게 부끄러워!" 그는 키보드를 두드려 버렸다. (똥을 싸서 뭉개는 코드) 민수는 어리둥절해서 길을 떠났다. '개발자들은 정말, 정말 이상해.' 그는 생각했다.

네 번째 부서(별)는 '\*\*재무팀장(사업가)\*\*'의 방이었다. 그는 너무 바빠서 민수가 왔는데

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담뱃불이 꺼졌네요." "셋 더하기 둘은 다섯. 다섯 더하기 일곱은 열둘. 자산 총계 12억. 안녕. 부채 비율 스물둘. 감가상각 스물여덟. 다시 불 붙일 시간이 없어. 예산 삭감 서른하나. 휴! 그러니까 5억 1백6십2만 2천7백3십1원이군." "5억이라니, 무엇이 말이에요?" "응? 너 아직 안 갔냐? 5억... 나도 몰라. 일이 너무 많아. 나는 진지한 사람이야(CFO). 쓸데없는 소리 할 시간 없어! 인건비 둘 더하기 다섯은 일곱..." "5억이라니, 무엇이 말이나구요?" 한번 질문을 하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민수가 다시 물었다. 재무팀장은 고개를 들었다. "내가 이 회사에 산 지 54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방해받은 적은 딱 세 번뿐이야. 첫 번째는 22년 전 벤처 붐이 일어났을 때야. 주가가 요란한 소리를 내는 바람에 정산을 네 군데나 틀렸지. 두 번째는 11년 전 회계 감사가 들이닥쳤을 때고. 난 운동 부족이야. 골프 칠 시간이 없거든. 나는 진지한 사람이니까. 세 번째가 바로 지금이야! 그러니까 5억..." "5억 뭐요?" 재무팀장은 질문을 받으면 엑셀을 닫기는 글렀다는 걸 깨달았다. "가끔 장부에 보이는 저 작은 것들 말이다." "영수증이요?" "아니, 반짝거리는 작은 숫자들." "매출이요?" "아니. 개미 투자자들을 몽상에 잠기게 만드는 저 금빛 나는 것들 말이다. 나는 진지한 사람이라 투자할 시간이 없어." "아! 자산을 말하는군요?" "그래, 자산이야." "5억 개의 자산을 가지고 뭘 하는데요?" "5억 1백6십2만 2천7백3십1원이야. 나는 정확한 사람이야." "그 자산들을 가지고 뭘 하냐구요?" "뭘 하냐고?" "네."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소유하는 거지(유보금)." "자산을 소유한다구요?" "그래." "하지만 나는 본부장을 만났는데, 본부장들은..." "본부장들은 소유하지 않아. '집행'하지. 그건 아주 다른 거야." "자산을 소유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부자 회사가 되는 데 소용이 있지." "부자 회사가 되는 건 무슨 소용이 있는대요?" "다른 스타트업이 발견되면 M&A(인수)하는 데 소용이 있지." 민수는 생각했다. '이 사람은 워커홀릭 개발자처럼 말하네.' "하지만 회사를 어떻게 소유해요?" "회사가 누구 건데?" 재무팀장이 통명스럽게 되물었다. "모르겠어요. 주주들의 것이죠." "그럼 내 거야. 내가 제일 먼저 그 생각을 했으니까(스톡옵션)." "그걸로 충분해요?" "물론이지. 네가 주인 없는 특허를 발견하면 그건 네 거야. 네가 주인 없는 도메인을 발견하면 그건 네 거야. 네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제일 먼저 떠올리면 창업을 하지. 그러면 그건 네 거야. 나는 자산을 소유해. 나보다 먼저 자산을 움켜쥔 생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럼 팀장님은 그걸로 뭘 해요?" "관리하지. 세고 또 세지.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나는 진지한 사람이니까." 민수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았다. "나는 법인카드가 있으면 지갑에 넣고 굶을 수 있어요. 나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런칭해서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팀장님은 자산을 쓸 수 없잖아요." "뭣 쓰지. 하지만 은행에 예치할 수는 있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작은 종이 조각(통장)에 내 자산의 액수를 적어서 금고에 넣고 잠근다는 뜻이야." "그게 다예요?" "그걸로 충분해." '재미있네. 시적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리 생산적인 일은 아니야.' 민수는 생각했다. 민수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은 임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달랐다. "나는 프로젝트를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매일 커밋

을 해요. 서버도 세 개 가지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리부팅해 줘요. 내가 소유하는 건 서버들에게나 프로젝트에게나 유익해요. 하지만 팀장님은 자산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잖아요(투자 안 함)." 재무팀장은 할 말이 없었다. 민수는 떠났다. '임원들은 정말, 정말로 이상해.' 그는 이직 준비를 하면서 생각했다.

## 제9장: 당직 근무자

다섯 번째 부서는 아주 이상했다. 모든 부서 중에서 가장 작았다. 모니터 하나와 \*\*\*당직 근무자(가로등 켜는 사람)\*\*가 있을 자리밖에 없었다. 집도 없고 사람도 없는 야간 당직실에 모니터와 당직자가 무슨 소용이 있는지 민수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생각했다. '이 사람은 우스꽝스러울지도 몰라. 하지만 본부장이나 마케터나 재무팀장이나 워커홀릭보다는 덜 우스꽝스러워. 적어도 이 사람의 일은 의미가 있잖아. 서버 모니터링을 하는 건 서비스 하나나 트래픽 한 줄기를 더 살려내는 것과 같아. 모니터를 끄는 건 그 서비스나 트래픽을 잠재우는 거고. 참 숭고한 직업이야. 숭고하니까 진정으로 유용한 거야.' 그는 당직실에 들러 근무자에게 공손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왜 방금 모니터를 켜어요?" "매뉴얼이야. 안녕." "매뉴얼이 뭔데요?" "모니터를 끄는 거지. 안녕." 그는 다시 모니터를 켜다. "왜 다시 켜어요?" "매뉴얼이야." "이해가 안 가요." "이해할 건 없어. 매뉴얼은 매뉴얼이니까. 안녕." 그는 다시 모니터를 켜다. 그리고 붉은 체크무늬 손수건으로 땀을 닦았다. "나는 끔찍한 직업을 가졌어. 옛날에는 합리적이었지. 아침에 끄고 저녁에 켜어. 낮에는 쉬고 밤에는 잤지." "그후로 매뉴얼이 바뀌었나요?" "매뉴얼은 안 바뀌었어. 그게 비극이야! 서비스 트래픽은 해마다 점점 더 빨라지는데 매뉴얼은 안 바뀐 거야!" "그래서요?" "이제는 트래픽이 1초에 한 바퀴씩 도니까 쉴 틈이 없어. 1초에 한 번씩 새로고침을 해야 해!" "정말 재미있네요! 여기서 하루가 1초라니!" "하나도 안 재미있어.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벌써 한 달치 로그가 쌓였어." "한 달이요?" "그래. 30분이니까. 30일이지! 안녕." 그는 다시 모니터를 켜다. 민수는 그를 바라보며, 매뉴얼에 그토록 충실한 이 당직자가 좋아졌다. 의자를 뒤로 물려 칼퇴를 보던 옛일이 생각났다. 그를 도와주고 싶었다. "저기요... 쉬고 싶을 때 언제든지 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난 항상 쉬고 싶어." 당직자가 말했다. "네 모니터링 툴은 아주 성능이 좋아서 스크립트 세 줄이면 자동화할 수 있잖아. 천천히 코딩하기만 하면 항상 로그를 볼 수 있을 거야. 쉬고 싶을 때 매크로를 돌려. 그럼 원하는 만큼 휴식이 계속될 거야." "그건 별 도움이 안 돼. 내가 인생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꿀잠 자는 거거든." "그거 안됐네요." "안됐지. 안녕." 그는 모니터를 켜다.

민수는 부서를 이동하며 생각했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낙하산이나 인플루언서나 워커홀릭이나 재무팀장에게 무시당할 거야. 하지만 내가 보기에 우스꽝스럽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뿐이야. 자기 이익이 아닌 시스템을 위해 바쁜 유일한 사람이니까.' 그는 아쉬움에 한숨을 쉬었다. '저 사람하고만 동료가 될 수 있었는데. 하지만 당직실이 너무

작아서 두 책상이 있을 자리가 없어.' 민수가 차마 인정하지 못한 것은, 24시간 동안 장애 알람이 1440번이나 울리는 이 지옥 같은 부서를 떠나기가 아쉬웠다는 사실이다.

## 제10장: 기획 이사

여섯 번째 부서는 열 배나 더 컸다. 거기에는 엄청나게 큰 기획서를 쓰는 '\*\*'기획 이사(지리학자)\*\*가 살고 있었다. "오, 개발자가 오군요!" 그는 민수를 보고 외쳤다. 민수는 회의 테이블에 앉아 숨을 돌렸다. "어디서 오는 길이나?" 이사가 물었다. "저 두꺼운 파일은 뭐예요? 여기서 뭘 하세요?" "나는 기획자(PMO)다." "기획자가 뭐예요?" "시장과 경쟁사와 고객과 니즈와 트렌드가 어디 있는지 아는 관리자지." "그거 참 재미있네요. 진짜 직업다운 직업이네!" 민수는 기획 이사의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그렇게 위엄 있는 사무실은 본 적이 없었다. "이사님 부서는 참 아름다워요. 고객 데이터도 있나요?" "나는 모른다." "아!" 민수는 실망했다. "경쟁사 분석은요?" "모른다." "니즈와 트렌드와 시장은요?" "그것도 모른다." "기획자라면서요!" "그래. 하지만 나는 영업사원(탐험가)이 아니다. 내 부서에는 영업사원이 한 명도 없어. 시장과 경쟁사와 니즈를 파악하러 다니는 건 기획자가 하는 일이 아니야. 기획자는 사무실을 비우기엔 너무 중요한 사람이야. 대신 영업사원들을 사무실로 불러서 그들의 보고를 기록하지. 영업사원의 썰이 흥미로우면 그 사람의 근태를 조사하고." "왜요?" "영업사원이 거짓말을 하면 사업계획서에 재앙이 되니까. 술주정뱅이 영업사원도 안 돼." "왜요?" "술 취한 사람은 사물을 두 개로 보니까. 그럼 계약이 하나밖에 없는데 둘이라고 적게 되잖아." "그럼 이사님은 영업사원에게 증거를 요구하나요?" "아니, 그건 너무 복잡해. 큰 계약을 따왔다고 하면 법인 인감을 가져오라고 하지."

기획 이사는 갑자기 흥분했다. "그런데 너는 현장에서 왔잖아! 너는 개발자야! 네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다오!" 기획 이사는 노선을 켜고 키보드를 두드렸다. "내가 근무하는 곳은 별로 재미없어요. 아주 작거든요. 서버가 셋 있어요. 둘은 가동 중이고 하나는 백업 용이에요. 하지만 어찌 될지 모르죠." "어찌 될지 모르지." "핵심 프로젝트(장미)도 하나 있어요." "우리는 프로젝트는 기록하지 않는다." "왜요? 프로젝트가 제일 중요한데!" "프로젝트는 '일시적'이니까." "일시적이라는 게 뭐예요?" "사업계획서는 모든 문서 중에서 가장 진지한 문서야. 유행에 뒤쳐지는 법이 없어. 시장이 위치를 바꾸는 일은 드물어. 자본금이 마르는 일도 드물고. 우리는 영원한 비전(Vision)들을 기록한다." "하지만 백업 서버가 다시 터질 수도 있잖아요. 일시적이라는 게 뭐예요?" "서버가 죽었든 살았든 우리에게겐 마찬가지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인프라 비용'이라는 거지. 비용은 변하지 않으니까." "일시적이라는 게 뭐냐구요?" "금방 드랍(Drop)될 위험이 있다는 뜻이지." "내 프로젝트가 금방 드랍될 위험이 있대구요?" "물론이지." '내 프로젝트는 일시적이구나. 시장에 대항해서 자기를 지킬 무기라곤 방화벽 네 개밖에 없는데! 나는 프로젝트를 서버에 혼자 내버려 두고 왔어!'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느낀 후회였다. 하지만 그는 용기를 냈다. "어

디를 지원하면 좋을까요?" "본사(HQ/지구)라는 곳에 가보거라. 평판이 좋거든." 민수는 프로젝트를 생각하며 면접을 보러 떠났다.

#### 제11장: 본사에 온 민수와 헤드헌터

일곱 번째 장소는 본사(HQ)였다. 본사는 그저 그런 회사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111명의 본부장, 7000명의 기획자, 90만 명의 재무팀장, 750만 명의 워커홀릭, 3억 1100만 명의 마케터, 즉 약 20억 명의 어른들이 근무하고 있다. 민수가 본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 사람이라곤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몹시 놀랐다. 잘못 찾아온 게 아닌가 걱정하고 있는데, 대리석 바닥 위에서 명함 색깔의 고리 같은 것이 움직였다. "안녕." 민수가 말했다. "안녕." \*\*헤드헌터(뱀)\*\*가 말했다. "여기가 무슨 회사니?" "본사야. 강남이지." "아! 그럼 본사에는 사람이 없니?" "여긴 로비야. 로비에는 사람이 없어. 본사는 아주 크다." 민수는 안내 데스크 위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조명들이 반짝이는 건 나중에 각자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려는 걸까? 내 부서를 봐. 바로 우리 위에 있어(같은 건물). 하지만 정말 멀구나!" "아름다운 부서네. 여기는 뭘 하러 왔니?" 헤드헌터가 물었다. "프로젝트랑 좀 문제가 있어서." "아!" 그들은 침묵했다. "직원들은 어디 있니?" 민수가 다시 물었다. "로비는 좀 외롭구나..." "직원들 틈에 있어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야." 헤드헌터가 말했다. 민수는 헤드헌터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너는 참 이상하게 생겼다. 넥타이처럼 가늘고..." "하지만 난 회장님의 넥타이보다 더 강력해." "너는 힘이 없어 보이는데... 사원 증도 없고... 출장도 못 하잖아." "나는 너를 해외 지사보다 더 멀리 데려다줄 수 있어." 헤드헌터는 민수의 발목을 스톡옵션 계약서처럼 휘감았다. "내가 컨택하는 사람은 누구든 자기가 나온 학교로 되돌아가게 되지. 하지만 너는 순수하고 지방 TF에서 왔으니까..." "너는 이 단단한 본사 바닥 위에서 너무 약해 보여서 측은한 생각이 드는구나. 네가 네 부서가 그리울 때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아! 무슨 뜻인지 알겠어. 하지만 너는 왜 항상 연봉 협상하듯 말하니?" "나는 모든 협상을 타결하니까." 그들은 침묵했다.

#### 제12장: 사내 메신저와 앱스토어

민수는 본사를 가로질러 오직 앱 하나만 만났다. 기능이 세 개 달린 보잘것없는 앱이었다. "안녕." "안녕." "사람들은 어디 있니?" "사람? 몇 년 전에 대여섯 명의 유저를 본 것 같아. 하지만 어디 가야 만날 수 있을지는 몰라. 알고리즘 따라 떠돌아다니거든. 그들은 충성심이 없어서 아주 곤란해해." "안녕." "안녕." 민수는 고층 엘리베이터로 올라갔다. 그가 아는 산이라곤 무릎까지 오는 서버 랙 세 개뿐이었다. 그는 생각했다. '이렇게 높은 층에서는 회사 전체와 사람들을 다 볼 수 있겠지...' 하지만 파티션처럼 뾰족한 칸막이들 밖에 보이지 않았다.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사내 메신저(메아리)\*\*가 대답했다. (전체 공지) "너희는 누구니?" "누구니... 누구니... 누구니..." "내 동료가 되어 줘. 나는 외로워." "외로워... 외로워... 외로워..." '참 이상한 회사네! 삭막하고 뾰족하고 험해. 직원들은 상상력이 없고 상사의 말을 복붙(Copy&Paste)만 하는구나. 내 부서에 있는 프로젝

트는 언제나 먼저 알림을 보냈는데...'

오랫동안 복도와 회의실과 탕비실을 헤치고 걸던 민수는 드디어 게시판을 하나 발견했다. 게시판은 모두 사람들이 사는 커뮤니티로 이어져 있다. "안녕." 유사한 앱들이 만발한 '\*\*앱스토어(장미 정원)\*\*'였다. "안녕." 앱들이 말했다. 민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모두 자기 프로젝트와 닮았다. "너희는 누구니?" "우리는 앱이란단다." 민수는 몹시 슬퍼졌다. 그의 프로젝트는 자기가 사내에서 단 하나뿐인 솔루션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이 스토어 하나에만도 똑같은 앱이 5천 개나 있었다! '내 프로젝트가 이걸 보면 몹시 상처받겠지. 비웃음을 사지 않으려고 서버 다운 시늉을 할 거야. 그럼 난 긴급 점검하는 척해야겠지. 안 그러면 나한테 죄책감을 주려고 진짜로 서비스 종료해 버릴지도 모르니까...' 그는 생각했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프로젝트를 가진 PM인 줄 알았는데, 평범한 앱 하나를 가졌을 뿐이야. 그 앱과 내 무릎까지 오는 서버 세 개로는 위대한 CTO가 될 수 없어...' 그는 휴게실 소파에 엎드려 울었다.

### 제13장: 멘토와 원팀(One Team)

그때 '\*\*멘토(여우)\*\*'가 나타났다. "안녕." "안녕." 민수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난 여기 파티션 뒤에 있어." "선배는 누구세요? 참 인상 좋으시네요." "난 멘토야." "이리 와서 나랑 회의해요. 난 지금 몹시 슬퍼." "난 너랑 회의할 수 없어. 나는 '원팀(One Team)'이 되지 않았거든(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아! 죄송해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다. "'원팀'이 된다는 게 뭐예요?" "너는 여기 신입이 아니구나. 넌 뭘 찾고 있니?" "난 동료들을 찾고 있어. '원팀'이 된다는 게 뭐냐구?" "사람들은 정치질을 가지고 사냥을 해. 아주 골치 아픈 존재지! 그들은 연봉도 올려. 그게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야. 너 연봉을 찾니?" "아니. 난 친구를 찾고 있어. '원팀'이 된다는 게 뭐냐구?" "그건 너무 잊혀진 일이야. 그건 '관계를 맺는다(Team Building)'는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구?" "그래. 지금 너는 나에게 수십 명의 다른 신입들과 다를 바 없는 사원일 뿐이야. 나는 네가 필요 없고, 너도 내가 필요 없어. 네가 보기에 나는 수십 명의 과장과 똑같은 테니까. 하지만 네가 나와 원팀이 된다면 우리는 서로 필요하게 돼. 너는 나에게 이 회사에서 단 하나뿐인 후배가 되고, 나도 너에게 회사에 하나뿐인 사수가 될 거야..."

"이제 좀 알 것 같아.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그 프로젝트가 나랑 원팀이 되었나 봐..." "그럴 수도 있지. 회사에는 별의별 TF가 다 있으니까." "아냐, 본사에서가 아니야." 멘토는 몹시 궁금해했다. "다른 지사에서?" "응." "그 지사에는 정치질이 있니?" "아니." "거 참 괜찮네! 연봉 인상은?" "없어." "완벽한 곳은 없구나." 멘토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멘토는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아갔다. "내 업무는 단조로워. 나는 버그를 쫓고 임원들은 나를 쫓아. 버그들은 모두 비슷하고 임원들도 모두 비슷해. 그래서 난 좀 지루해. 하지만 네가 나와 원팀이 된다면 내 업무는 환해질 거야. 나는 다른 발자국 소리와는 다



른 너만의 키보드 타건 소리를 알게 되겠지. 다른 타건 소리는 나를 딴짓하게 만들지만, 네 타건 소리는 음악처럼 나를 모니터 앞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저기 봐! 서버실이 보이지? 나는 코딩을 안 하니까 서버는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 서버실을 봐도 아무 생각도 안 나. 그건 슬픈 일이야. 하지만 네 머리카락은 염색했으니까, 네가 나와 원팀이 된다면 정말 근사할 거야! 서버실의 LED 불빛을 보면 네 생각이 날 테니까. 나는 서버 팬 돌아가는 소리를 사랑하게 될 거야..." 멘토는 말을 멈추고 민수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부탁이야... 나와 원팀이 되어 줘!" "그리고 싶어. 하지만 난 시간이 별로 없어. 동료들을 찾아야 하고 배워야 할 기술 스택도 많아." "자기가 함께 야근한 것만 알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은 이제 뭘 알 시간조차 없어. 다 만들어진 솔루션을 업체에서 사니까. 하지만 진심을 파는 업체는 없으니까 사람들은 동료가 없어. 동료를 원한다면 나와 원팀이 되어!" "어떻게 해야 하는데?" "참을성이 있어야 해. 처음엔 나한테서 좀 떨어져서, 그렇게 보조 의자에 앉아 있어. 내가 결눈질로 너를 볼 테니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슬랙 메시지는 오해의 씨앗이니까. 하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더 가까운 자리로 옮겨도 돼..."

다음 날 민수가 다시 왔다. "같은 시간에 출근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멘토가 말했다. "네가 오후 4시에 회의를 잡는다면 난 3시부터 긴장하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더 긴장하겠지. 4시가 되면 난 안절부절못하고 자료를 준비할 거야. 회의의 대가를 알게 되는 거지! 하지만 네가 아무 때나 들이닥친다면 난 몇 시에 멘탈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잖아... 아젠다(Agenda)가 필요해." "아젠다가 뭐야?" "그것도 너무 잊혀진 일이야. 그건 어느 업무를 다른 업무들과 다르게, 어느 회의를 다른 잡담들과 다르게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 임원들에게도 아젠다가 있어. 목요일이면 골프를 치러 가지. 그래서 목요일은 멋진 날이야! 내가 구내식당까지 산책을 가니까. 임원들이 아무 때나 골프를 친다면 모든 날이 똑같은 테고, 난 휴가가 없겠지."

그렇게 해서 민수는 멘토와 원팀이 되었다. 떠날(부서 이동/퇴사) 시간이 다가오자 멘토가 말했다. "아... 난 올 것 같아." "선배 타이야. 난 선배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는데 선배가 원팀이 되자고 했잖아..." "그래." "근데 울려고 하잖아!" "그래." "그럼 선배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 "좋은 게 있어. 서버실 불빛 색깔 때문에..." 멘토가 덧붙였다. "가서 앱스토어의 앱을 다시 봐. 네 프로젝트가 세상에 하나뿐이란 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송별회 하러 다시 와. 인사이트 하나를 선물로 줄게."

민수는 앱을 보러 갔다. "너희는 내 프로젝트와 전혀 달라. 너희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너희를 유지보수하지 않았고, 너희도 아무도 유지보수하지 않았어. 너희는 예전의 내 멘토와 같아. 수십 명의 다른 과장들과 똑같았지. 하지만 내가 사수로 삼았으니까 이제 그 멘토는 세상에 하나뿐이야." 앱들은 당황했다. "너희는 UX가 좋지만 텅 비어 있어. 누가 너희를 위해 야근할 수는 없을 거야. 물론 지나가는 유저는 내 프로젝트도 너희와 똑같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 프로젝트 하나가 내게는 너희 모두보다 더 소중한."

내가 코딩을 한 프로젝트니까. 내가 컨테이너를 씌워 준 프로젝트니까. 내가 방화벽을 해 준 프로젝트니까. 내가 버그를 잡아 준 프로젝트니까. 내가 에러와 자량을 들어주고 로딩 시간까지도 들어준 프로젝트니까. 그건 내 프로젝트니까."

그는 멘토에게 돌아왔다. "안녕히 계세요." "잘 가. 내 인사이트는 이거야.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보인다(로그만 봐선 안 보인다). 중요한 것은 KPI 지표에 보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KPI 지표에 보이지 않는다..." 민수는 기억하려고 되뇌었다. "네 프로젝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건 네가 네 프로젝트에 갈아 넣은 야근 시간 때문이야." "내가 내 프로젝트에 갈아 넣은 야근 시간 때문이야..."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잊어버렸어. 하지만 넌 잊으면 안 돼. 네가 만든 것에 대해 너는 영원히 책임이 있어(유지보수). 너는 네 프로젝트에 대해 책임이 있어..." "나는 내 프로젝트에 대해 책임이 있어..." 민수는 되뇌었다.

#### 제14장: 인사팀장과 에너지 드링크

"안녕." 민수가 말했다. "안녕." \*\*\*인사팀장(전철수)\*\*\*이 말했다. "여기서 뭘 하세요?" "직원들을 천 명씩 묶어서 인사 발령을 내고 있어. 그들을 싣고 가는 부서를 신설했다가, 영업팀으로도 보냈다가 지방으로도 보냈다가 하지." 불을 환하게 켜 구조조정 열차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직원들은 참 바쁘네요. 뭘 찾고 있는 거죠?" "CEO도 몰라." 반대 방향에서 또 다른 신규 채용 열차가 지나갔다. "벌써 돌아오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들이 아니야. 교체(Turnover)하는 거야." "있는 부서가 마음에 안 들었나요?" "직원들은 자기가 있는 부서에 결코 만족하지 않아." 세 번째 파견 열차가 지나갔다. "저 사람들은 첫 번째 사람들을 쫓아가는 건가요?" "아무것도 안 쫓아가. 그 안에서 자거나 떠났거나 하고 있어. 오직 신입 직원들만 모니터에 코를 박고 일을 배우지." "신입들만 자신이 뭘 찾는지 아는구나." 민수가 말했다. "신입들은 웰컴 키트 때문에 시간을 쓰고,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해져. 누가 텀블러를 뺏어가면 울어 버리지..." "신입들은 운이 좋네." 인사팀장이 말했다.

"안녕." 민수가 말했다. "안녕." \*\*\*편의점 사장(상인)\*\*\*이 말했다. 그는 갈증을 없애 주는 최신 '고카페인 알약'을 파는 상인이었다. 일주일에 한 알만 먹으면 커피를 마시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 "왜 이런 걸 팔아요?"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해 주거든. 경영지원팀이 계산해 봤는데, 일주일에 53분이나 절약된대." "그 53분으로 뭘 하는데요?" "하고 싶은 일을 하지(더 일하지)." '나에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53분이 있다면, 나는 아주 천천히 구내 카페를 향해 걸어갈 텐데...' 민수는 생각했다.

#### 제15장: 서버실의 커피와 별들의 웃음

지하 전산실에서 서버가 고장 난 지 여드레째 되는 날, 나는 커피 믹스를 한 봉지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셨다. "멘토랑 같이..." 민수가 말했다. "민수야, 지금은 멘토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야!" "왜?" "탈수로 쓰러지게 생겼으니까..." 그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했다. "쓰러지더라도 멘토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야. 난 멘토 선배가 있어서 기뻐..." '위험을 모르는구나. 배고픔도 목마름도 모르고 모니터만 있으면 되니까...'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나도 목말라... 자판기를 찾으러 가자."

지하 전산실 한가운데서 자판기를 찾다니 터무니없는 일 같았지만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 묵묵히 복도를 걷다 보니 밤이 되고 비상구 불이 켜졌다. 카페인 금단 증상 때문에 열이 나서 비상구 불빛이 꿈속처럼 보였다. "너도 목마르니?" 그는 대답 대신 말했다. "커피는 마음에도 좋을 수 있어..." 나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잠자코 있었다. 그는 지쳐서 주저앉았다. 나도 옆에 앉았다. "서버들이 아름다운 건 보이지 않는 코드 한 줄 때문이야..." "그래." "전산실이 아름다워." 그가 덧붙였다. 그건 사실이었다. 나는 전산실을 사랑했다. 랙 장비 옆에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팬 소음 제외). 하지만 그 소음 속에서 무언가가 빛나고 있다(LED). "전산실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탕비실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그 신비로운 빛의 의미를 갑자기 깨닫고 놀랐다. 어릴 적 다니던 회사에 비자금 장부가 묻혀 있다는 전설이 있었다.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 전설이 회사를 매혹적으로 만들었다. 내 회사는 비밀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 회사든 서버든 전산실이든, 그것들을 아름답게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연봉/복지)!" "팀장님이 내 멘토랑 같은 생각을 해서 기뻐."

민수가 잠이 들어서 나는 그를 업고 다시 걸었다. 감동적이었다. 부서지기 쉬운 레거시 코드를 안고 가는 것 같았다. 창백한 이마와 감은 눈, 에어컨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내가 보고 있는 건 사원증일 뿐이야. 가장 중요한 건 사번(ID)에 보이지 않아...' 그가 살짝 미소 짓는 걸 보고 나는 생각했다. '이 잠든 신입 사원이 나를 감동시키는 건 프로젝트 하나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야. 자는 동안에도 기획서의 내용이 등불처럼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어...' 새벽에 나는 탕비실을 발견했다. 그 탕비실은 흔한 정수기만 있는 곳이 아니었다. 스타벅스 캡슐 머신과 얼음 정수기가 다 갖춰져 있었다. "소리 들려? 우리가 머신을 깨우니까 추출 소리를 내잖아." 나는 그가 힘을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직접 커피를 내렸다. 그는 커피를 마셨다. 월급날처럼 달콤한 커피였다. 그 커피는 야근의 행진과 머신의 노래와 내 팔의 노력으로 태어난 것이었다. 그것은 보너스처럼 마음을 좋게 했다.

"팀장님네 본사 사람들은 한 폰에 앱을 5천 개나 깔지만, 자기들이 찾는 걸 거기서 발견하지 못해." "못 찾지." "하지만 그들이 찾는 건 앱 하나나 커피 한 모금에서 발견될 수도 있어." "그렇고말고." "하지만 눈은 장님이야. 마음(User Experience)으로 찾아야 해."

"약속 지켜 줘." 민수가 말했다. "무슨 약속?" "AI에게 씌울 방화벽 말이야... 난 프로젝트를 책임져야 해." 나는 노트북에서 아키텍처 그림들을 꺼냈다. 그는 웃었다. "팀장님 레거시 코드는 좀 국수 가닥 같아." "아!" "멘토 귀는 쏜대 같아. 너무 길어." 그는 내게 설

정하기 쉬운 방화벽 룰셋을 하나 짜 달라고 했다. 건네주면서 마음이 아팠다. "너 뭔가 계획(이직)이 있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늘이 내가 본사에 발령받은 지 1년째 되는 날이야. 바로 이 근처 부서였어." 그는 얼굴을 붉혔다. 나는 이유도 모르게 슬퍼졌다. "그럼 일주일 전 내가 민수 씨를 처음 만났을 때 혼자 야근하고 있었던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원래 부서로 돌아가던 중이었니? 1주년이라서?" 그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그는 질문에 대답은 안 하지만 얼굴을 붉히면 '그렇다'는 뜻이다. "난 좀 무섭다..." "팀장님은 이제 가서 일을 해. 서버를 고쳐야지. 내일 저녁에 다시 와."

#### 제16장: 이별 (이직)

다음 날 저녁, 돌아가 보니 민수가 파티션 위에 앉아 있었다. "아니야. 날짜는 맞지만 부서는 여기가 아니야..." 그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그래, 내 로그가 시작되는 곳을 보면 알 거야. 거기서 기다려. 오늘 밤에 갈게." 나는 파티션 밑으로 갔다가 펄쩍 뛰었다. 30초면 연봉 협상을 끝낼 수 있는 '\*\*헤드헌터(노란 뱀)\*\*'가 그를 향해 명함을 치켜들고 있었다. 내가 사직서를 꺼내려고 뛰어가자 헤드헌터는 인파 속으로 스르르 사라졌다.

나는 민수를 받아안았다. 심장이 마감 직전의 서버처럼 뛰고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니? 헤드헌터랑 이야기를 하다니!" 그는 나를 심각하게 쳐다보며 목을 끌어안았다. "팀장님이 서버를 고쳐서 기뻐. 이제 집에(칼퇴) 갈 수 있겠네." "어떻게 알았어?" (성공했다고 말하려던 참이었는데!) "나도 오늘 집으로 돌아가...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어려운 회사(유니콘 기업)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난 팀장님 AI 코드가 있어. 샌드박스도 있고 방화벽도 있고..." 그는 쓸쓸하게 웃었다. "민수야, 너 무서웠지..." "오늘 밤엔(새 회사에선) 더 무서울 거야..."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에 얼어붙었다. 이 웃음소리를 다시는 듣지 못한다는 게 견딜 수 없었다. 그건 내게 전산실의 커피 같았다. "오늘 밤이면 일 년이야. 내 부서가 작년 그 자리 바로 위에 올 거야(조직 개편). 중요한 건 성과표에 보이지 않아..." "그래."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야. 어느 서버에 있는 프로젝트를 사랑한다면 밤에 모니터를 바라보는 게 달콤할 거야. 모든 모니터에 프로젝트가 켜져 있는 것 같겠지." "그래." "커피도 마찬가지로야... 팀장님이 준 커피는 음악 같았어. 좋았지?" "그래." "팀장님은 밤에 빌딩들을 바라보겠지. 내 부서는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보여 줄 수 없어. 그게 더 나야. 내 부서는 팀장님에게 여러 볼 켜진 창문 중 하나가 될 거야. 그럼 팀장님은 모든 창문을 바라보는 걸 좋아하게 될 거야. 그 창문들이 모두 팀장님 친구가 될 거야. 내가 선물을 하나 줄게..."

그는 웃었다. "아! 난 그 웃음소리가 좋아!" "그게 내 선물이야. 커피하고 똑같아. 사람들마다 회사는 다 달라. 출장 다니는 사람에겐 마일리지이고, 어떤 사람에겐 그냥 월급통장

이고, 임원에게는 실적이고, 주주에게는 배당금이지. 하지만 그 회사들은 모두 침묵하고 있어. 팀장님은 누구와도 다른 회사를 갖게 될 거야..." "무슨 뜻이니?" "팀장님이 밤에 야근하며 창밖을 바라볼 때, 내가 그 불 켜진 빌딩 중 하나에 살고 있을 테니까, 내가 그중 하나에서 코딩하며 웃고 있을 테니까, 팀장님에게는 모든 빌딩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팀장님은 웃을 줄 아는 빌딩들을 갖게 되는 거야!" 그는 또 웃었다. "위로가 좀 되면(연봉이 오르면 다 위로가 되니까) 나를 안 것이 기쁠 거야. 팀장님은 언제까지나 내 사수로 있을 거야. 나랑 같이 웃고 싶어질 거고. 가끔 메신저를 켜면 팀원들이 놀라겠지. 모니터를 보고 웃고 있으니까. 그럼 말해 줘. '판교의 불빛들을 보면 자꾸 웃음이 나와!' 라고."

그는 다시 심각해졌다. "오늘 밤엔... 배웅 나오지 마. 내가 힘들어 보일 거야. 퇴사하는 것처럼 보일 거야. 와서 보지 마. 그럴 필요 없어..." "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헤드헌터 때문에 그래. 헤드헌터가 팀장님을 스카우트할지도 몰라. 그들은 집요해. 장난으로 제안할 수도 있어." "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헤드헌터는 두 번째 제안할 때는 연봉이 없어(동결이야)..."

그날 밤 나는 그가 떠나는 걸 보지 못했다. 소리 없이 짐을 쌌다. 뒤따라가니 그는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아! 왔어?" 그는 내 손을 잡았지만 여전히 걱정했다. "틀렸어. 팀장님은 마음이 아플 거야. 내가 퇴사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진짜 백수가 되는 게 아니야..." 나는 입을 다물었다. "너무 멀어. 이 낡은 노트북을 가지고 갈 수 없어. 너무 무거워." "버려진 낡은 장비랑 같은 거야. 낡은 장비는 반납해도 슬프지 않아..." 그는 좀 낙심했지만 다시 힘을 냈다. "참 근사할 거야. 나도 빌딩들을 볼 거야. 모든 빌딩이 얼음 정수기가 있는 탕비실이 될 거야. 모든 빌딩이 내게 커피를 마시게 해줄 거야..." 그는 울고 있었다. "여기야. 혼자 가게 해줘." 그는 엘리베이터 앞에 앉았다. 무서웠던 것이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 "내 프로젝트 말이야... 난 책임이 있어! 너무 약하고 순진해. 가진 거라곤 디도스(DDoS)를 막을 방화벽 네 개뿐이야..." 나도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주저앉았다. "자... 다 됐어..." 그는 망설이다가 일어섰다. 한 발짝을 내디뎠다. 나는 꿈쩍할 수가 없었다. 그의 발목 근처에서 노란 셔츠의 헤드헌터가 반짝했을 뿐이다. 그는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다. 그는 시스템이 종료되듯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사라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 에필로그

이제 6년이 지났다. 나는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다. 동기들은 내가 살아서(해고되지 않고) 돌아온 걸 보고 기뻐했다. 나는 슬펐지만 피곤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제 슬픔은 좀 가라앉았다. 나는 그가 다른 회사(별)로 돌아갔다는 걸 안다. 출근 시간에 그의 자리를 찾을 수 없었으니까. 그렇게 대단한 자리는 아니었다. 밤이면 나는 키보드 소리를 듣는 게 좋다. 5억 개의 타건 소리 같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다. 민수에게 짜 준 AI 방화벽에 '\*\*'쓰기 권한(Write Permission)\*\*을 설정해 주는 걸 깜빡 잊은 것이다! 그가 AI 인턴을 제어할 수가 없었을 텐데. 그래서 나는 가끔 생각한다. '그 부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혹시 AI가 프로젝트를 삭제해 버리지는 않았을까?'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냐. 민수는 밤마다 프로젝트에게 컨테이너를 씌워 주고 AI를 잘 감시할 거야.' 그러면 나는 행복해진다. 모든 빌딩이 상냥하게 웃는다. 또 어떤 때는 생각한다. '한 번이라도 방심하면 끝장이잖아! 컨테이너를 잊었거나 AI가 밤중에 몰래 무한 루프를 돌았다면...' 그러면 타건 소리가 모두 에러 알림음으로 변한다.

이것은 아주 큰 미스터리다. 민수를 사랑하는 당신들에게도, 나에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판교 어딘가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AI 인턴 하나가 핵심 프로젝트를 삭제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온 IT 업계가 달라지는 것이다. 밤하늘의 빌딩들을 바라보라. 그리고 물어보라. AI가 프로젝트를 지웠을까, 안 지웠을까? 그러면 모든 것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임원들은 그게 그토록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끝)